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월요기도모임 기도제목(2022.6.20)

1교회> 최근 북한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 사태 속에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파송한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기도를 요청합니다. 북한에 코로나 발생으로 북한 내 지하교회와 성도들의 보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백성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도록, 특별히 훈련하여 파송한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하루 속히 문이 열려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보낸 긴급 기도입니다. 지난 4월 25일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성도들의 보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은신처이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시편 32:7 북한어 성경) 환난 당한 북한 지하 교회와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 사태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 속히 코로나 사태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북한의 국경이 열려 주민이 자유로이 오가며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2. 구제>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보내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남편도 앓고 아이도 앓으니 살아가기가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값은 너무 비싸서 약도 살 형편이 안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북한 성도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코로나 감염 증상으로 고열에 설사를 하고 배가 너무 아픈데 설사약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고통에 울부짖는다고 매일 전해오고 있습니다. 00 지역에서는 고열이 심한데 약을 살 수가 없어 부부가 아편을 먹고 숨지는 등 난리입니다.” 탈북 성도가 전해 준 안타까운 북한 소식입니다.

시편 70편 1절과 5절에 “하나님이여 부디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련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당신은 나의 도움이며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신 말씀으로 환난당한 북한의 백성과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북한 전역을 강타했음에도 환자들을 위한 치료와 약을 구할 수 없어 죽어가는 북한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사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양식이 저들에게 보내져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필요한 의약품이 보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시기를 지나는 하루 하루를 보호하여 주시고, 작금의 상황이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하도록 그 땅을 진동하여 주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_